

눈꽃...겨울꽃...신안 천사섬 황홀경

압해 천사섬분재공원 랜선축제 성료 눈 속 '2004만 송이' 애기동백 만발 탁 트인 바다정원에 관광객도 힐링

'신안 섬 겨울꽃 랜선 축제'가 52일 간의 여정을 마쳤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52일간 압해읍 송공리 천사섬분재공원에서 '섬 겨울꽃 랜선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숲에 심어진 1만7000여 그루의 하양, 분홍, 빨강의 애기동백꽃 2004만 송이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랜선축제로 진행했다.

랜선 축제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관람객들은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2004만 송이의 애기동백꽃 향연을 만끽하도록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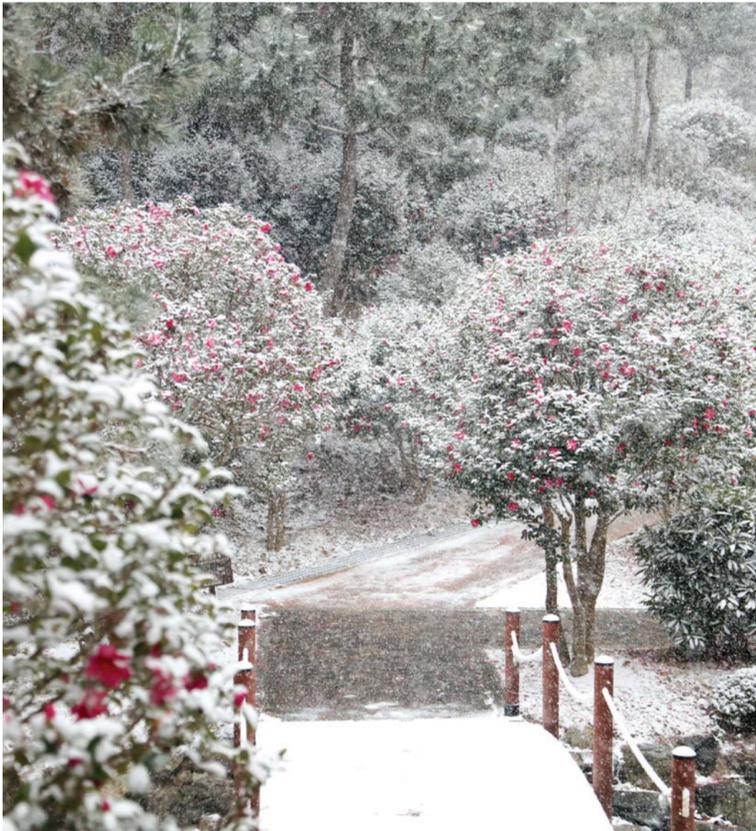
신안군은 관광 불모지였던 압해도에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송공산 남쪽 기슭 황무지 13ha(4만여 평)에 돌, 나무, 분재, 꽃을 주제로 한 분재테마공원을 일궜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애기동백 숲이다.

이 곳에는 여러 독지가들이 다양한 분재와 나무를 기증, 전시돼 있다. 특히 최병철 박사가 평생 가꾼 명품 분재 500여점, 분재소재 8000여점, 서적 300여점을 기증해 관광명소의 기틀을 다졌다.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천사섬분재공원은 분재원과 야생화원, 수목원, 초화원, 산림욕장, 온실, 애기동백 군락지 등으로 구성됐다.

분재원과 온실에는 금송-해송-소사-철쭉-주목-향나무 등 1500여점의 다양한 명품 분재와 아프리카 석조문화의 진수인 소나조각 100여점을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자극한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4만여평의 넓은 공원을 한가로이 산책하며 탁 트인 5000만여 평의 바다정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천사섬분재공원의 애기동백꽃이 눈 속에 만발했다.

<신안군 제공>

원을 내려다보니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린 듯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며 즐거워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제 기간 서너 차례 내린 함박눈으로 소복이 덮인 빨간 애기동백꽃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계속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잘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 왕인박사유적지에 '월출산 아트 브리지' 우뚝

영암 출신 작가 37명 참가...놀이체험 복합조형물로 제작

영암군은 왕인박사유적지에 월출산을 형상화한 '월출산 아트 브리지' <사진>가 설치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추진된 '아트 브리지'는 영암 출신 '월출미술인회' 작가 37명이 참여했다.

'우리 동네 미술 bgo, 걷go, 놀go 월출산'의 놀이체험 복합조형물로 영암의 대표적 명산인 월출산을 형상화했다.

스테인레스봉 200개를 수직으로 사용해 월출산의 우뚝 솟은 봉우리 모양으로 가로 21m, 최고높이 7.5m이다.

산을 오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아치

형의 S자 동선 브릿지의 바닥은 청자타일로 제작했다.

청자타일은 백토에 청자유약을 발라서 구워낸 것으로 64명의 주민들과 37명의 참여작가가 영암의 이야기를 600개의 부조 형태로 조각했다.

'아트 브리지'는 작품 위를 걸어보면서 영암의 문화적 이미지를 눈으로 보고 느끼며, 놀 수도 있는 생활 속의 복합 체험형 형태의 미술작품이 특징이다.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기획한 정선희 월출미술인회 대표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자긍심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이혁영 씨월드고속웨리 회장, 3000만원 기탁

목포복지재단에 총 5억1000만원

목포-제주, 해남우수영-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씨월드고속웨리(주) 이혁영(사진 왼쪽) 회장이 3일 이웃사랑 성금 3000만원을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이웃돕기 성금으로 총 5억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08년부터 목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고 밀반찬 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간식지원, 김장김치 나눔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목포복지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적극 발굴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농업회사법인 (주)한들, 무안군에 쌀 100포

무안군은 일로읍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주)한들(대표 이홍선)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씨달라며 쌀(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기부 받은 쌀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무안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들은 영농의 조직화와 규모화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홍선 한들 대표는 "지난해 유례없는 농업 재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설 명절 만큼은 근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쌀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세열골

"중기 효율적 지원...서남부 경제 도약 최선"

임종현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무 경력도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전남 서남부지역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일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으로 부임한 임종현(55) 신임 본부장은 "지역경제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연구와 중소기업의 효율적 자금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신임 본부장은 광주 상고와 서경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경제통계국 조사역, 인사경영국 차장, 재산관리실 재산총괄팀장을 역임했다. 재정경제부 파견 근무 경력도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청와대(5년)·강원랜드(3년) 납품점

다향굴비

대표 곽희순·이용철

우리 업체는 100% 국내산 참조기만 엄선하여 최상의 품질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산 천일염(5년 이상)으로 염장하여 항상 고객님을 위해 더욱 맛 좋은 굴비를 만들겠습니다.

문의 ☎ 061-356-6798
☎ 010-5356-4990

마음의 거리 좁히는 Best

코로나 극복하는 명절!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주문하러가기

굴비 (가정용)



70,000~130,000원

굴비 (선물용)



100,000원부터~

보리굴비



80,000~100,000원